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보배가 자기에게 있다

☞ 19면에서 계속

를 얻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은, 번개가 치거나 무지개가 서고 이럴 때, 비가 무지하게 오거나 비가 안 올 때, 창창한 때에 번개가 치고 이럴 때는 바로 우리가 물 호수를 대 놓고 서로 교환하는 그 때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 자연의 이 섭류를, 무루의 이 섭류를 어떻게 인간으로서 다 알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천체, 모든 것을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천체를 알 것입니다.

종교가 무슨 밥이나 해 놓고 떡이나 해 놓고 비는 그러한 것이 종교라고 잘못 생각한다면 역대의 조사들과 역대의 부처님과, 부처님이 나기 이전에도 있었던 이 진리 자체를 아주 망각하는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고, 또는 화산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모두 교환, 즉 말하자면 나는 이거를 줄 테니까 너는 이거를 달라는 격이나 똑같습니다. 소가 똥을 누어 놓으면 수많은 벌레들이 그것을 먹고 삽니다. 마르면 그걸로 집을 만듭니다. 나뭇가지를 갖다가 집을 만들고 그걸로다가 벽을 치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그런 문제들을 볼 때 너무 신비하고 그렇지마는, 그 신비한 도리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낮은 동물들도 전부 통신이 돼 있고, 즉 말하자면 식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식물들도 식별을 해서 앞으로 바람이 부는 거를 알고 있고 앞으로 모진 바람이 불어서 뿌리가 파이는 걸 알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박고 이 세상에 탄생을 하는데, 어찌 인간이 고등 동물로서 우리 자체에 주어진 거를 파악 못 하고 쓰지도 못하고, 중생이라는 이름에 못 박혀서 그냥 옮겨 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또 그러한 반면에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이고 또는 그 창살을 벗어나지 못해서 애를 쓰는, 자유권이 없이 끌려만 다니는, 바로 종 문서를 면치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면 여기 지구 안에는 지구 중생이라고 하겠지요. 지구 자유인이라는 소리를 못 듣고, 지구 벌레라는 소리를 듣고, 지구 중생이라고 듣겠지요. 그러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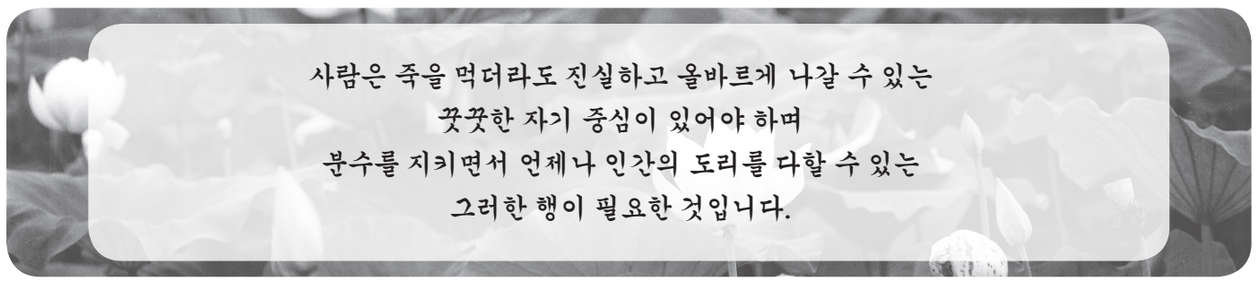
그럼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 그랬는데, 그건 우리 인간들이 그 존엄성을 위로는 가지고 아래로는 자기 배 속에 든, 이 세포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몸에 있는 중생들도 제도 못 하면 자기 자체를 끌고 다니지도 못해. 어느 스님네들이나 어느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중생들' 하면 여러분을 모두 제도해야 할 중생인 줄 아는데 자기부터 제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천수만 개 헤아릴 수 없는 자기 몸에 들어 있는 자기 중생을 제도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중생을 제도합니까? 수많은 제도를 할 수 있음으로써 자기 몸에 있는 그 중생들의 마음을 한마음으로 만들어서…, 즉 말하자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살던 습이라는 것도 체가 없는 겁니다.

업이라는 것도 체가 없는 거야. 자기 마음으로써 자기가 쌓아 놓고, 긁어서 부스럼 만들어 놓고 빠지고 울고 하는 거지, 어떠한 체가 있어서 빠지고 울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몸에 있는 그 마음이 모든 거를, 한생각이 투철하다면 이 5억이라는 생명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한 근원이 내 한마음의 근원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자유스럽게 이 몸을 끌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진화시켜서 옮겨 놓고 옮겨 놓고 하는 데에 뭐, 죽는 것을 그렇게 죽는다고 하겠습니까?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어느 친구가 중이 됐는데, 한 친구는 중이 안 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친구를 불러와서 "우리 어머니 천도 좀 잘해 다오." 하니까 대답도 없이 들어오면서 하는 소리가 "허허, 애당초에 태어나지나 않았더라면 죽지나 않을 것을…." 하고 그냥 바깥으로 발을 돌리며 나가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하치않게 들리겠지마는 그것은 무진 법문이자 무진 법칙에 의해서 동시에 바로 요리를 해서 동시에 바로 인간으로 천도를 시킨 한 찰나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죽을 때가 되면 벌써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달라.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고 하면서도,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간편하게 받고 또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 자기가 마음으로 업을 지어 놓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무지하게 고생을 해. 자기 마음으로 지은 모든 생명들이 자기한테 붙어서 떠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이상 자기 생명이 갈 수가 없어. 그러니 모두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받는 것이기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를 믿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려면, 진정한 자비를 알려면 이 도리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룻밤 사이에 죽어 가고 하룻밤 사이에 태어나고 이러는 거,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야, 오늘은 예쁘게 차리고 누구하고 만나고, 또 오늘은 돈을 얼마를 벌고, 오늘은 식구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또 저거 하고, 어디 가서 술 먹고, 어디 가서 또 만나고 또 살고 재미있게 지내면 이게 사는 보람이지." 이러지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죽을 먹더라도 진실하고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꿋꿋한 자기 중심이, 분수를 지키면서 언제나 항상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떠한 것을 할 때에 자기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자기가 만났다고 할 수 있으랴.' 하는 것을 생각해서 자기는 종이라고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게 공이 아닌가. 그거를 안다면 이 우주, 전체가, 즉 말하자면 원료를 튼튼하게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습니까? 내가 그 원료를 갖다 쓰려면 갖다 쓰는 거지. 어디고 나 아님이 없고 어디고 내 마음 아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생각을 내면 전체가 바로 한생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자유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굼벵이가 매미만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람이 또 이런 게 있지요? 요걸 한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굼벵이가 떨어질 때는 벌써 생각이 있어서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굼벵이가 떨어지기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굼벵이 껍질 이 자체가 굼벵이가 아닙니다. 굼벵이의 마음도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가 날 것을 미리 해 놓고서 날 때가 되면 여기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없어지자마자 벌써 여기에서는 매미로 탄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만 9개월이 되는데 인간이 여기에서 내가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갈 거를 벌써 정해 놓고, 여기에서 벌써 정해서 아홉 달이 돼서 날 때에 여기에서는 생명이 끊어지고 저기에서는 탄생을 찰나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묘한 인간의 법칙과 더불어 우주의 법칙이 동시에 같이 한 찰나 한 찰나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를 여러분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기 때문에 그 원료를 지속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 지속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지속시킬 수 없다면 내 집도 망가지거니와, 내 집을 바꿔서 좋은 집으로다가 옮길 수도 없거니와, 자유자재할 수도 없거니와 이 지구의 집도 내가 지속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될 때에는 얼마나 한 점의 마음이 중요한가 하는 거를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마음들을 올바로 써야지 마음들을 올바로 쓰지 않으면서, 진실치 못하면서 내가 잘살겠다, 못산다, 뭐, 어쩐다 이런 말들은 다 핑계이고 좋은 말이 못 됩니다. 내가 하나를 알면, 뿌리 하나만 싱싱하면 이파리고 가지도 다 싱싱하듯이 내 중심이 완벽하다면 가환, 우환, 액난 이런 모든 게 다 거기서 녹아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라도 뭐 걱정될 게 있습니까. (중략)

사람이 어떠한 급한 일이다 할지라도 자기 믿음이 진실하다면 죽으나 사나지, 자기 안 믿어 봤자지, 뭘 그래? 그럼 누굴 믿습니까?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나왔는데 자기를 억겁 전년서부터 이렇게 끌고 진화시키고 창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형성시킨 이 몸뚱이가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자기 마음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운전수가 돼 가지고 자기 몸뚱이가 움죽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인간이라면 상식과 교양 모두, 잘못되고 잘된 거를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인간은 인간답게 알고 있으니까 나쁜 일을 한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났더라도 그것은 자기 마음이 자기 몸뚱이를 리드해 나가면서, 또 자기 몸뚱이는 마음이 잘못되면 '이건 안 된다.' 하고 주인공에 맡겨 놓고, '이건 된다.' 할 때는 주인공에 감사하게 놓으면서, '내가 움죽거리는 것이 바로 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그 성품 자체가 고정됨이 없으니 공이 아닌가. 모든 것은 공이면서도 소소영영하게 아프면 만져 주고, 또 아프면 금방 통신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당신이 얼마나 고마우랴.' 이렇게 자기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보배는 자기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가 딴 데 있습니까? 저기 저 형상, 저 부처님이 당신네들 몸이고, 저 부처님의 마음이 당신네들 한 점의 마음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둘로 보겠습니까. 절대로 둘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절에 가든지 부처는 한 부처라고 하지마는 그 절에 사람이 있어야 부처가 있는 거지, 도둑놈이 있는데 어찌 부처가 있겠습니까. 모두 사람이 있어야 부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칠성이다 독성이다 뭐, 전부 해 놓은 거를 열 가지를 만들어 놓은 절에 간다 할지라도 그 독성도 나인 것이요, 부처도 나인 것이요, 신중도 나인 것이요, 모든 것이 나 아님이 없어. 그거를 다 둘로 보면서 모든 것을 각각으로 본다면 끄달려서 어떻게 인간이 이루종차 삽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도 놔야 되고 저기도 놔야 하고, 여기 안 놓으면 우리 남편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우리 자식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이걸 왜 각각 찾습니까. 물부처, 불부처, 흙부처, 바람부처 이것이 여기에 다 한꺼번에 있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이름을 일일이 찾고 그렇게 나가야만 하겠습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4월 27일 일반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5년 간 안양시 시민인성함양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행복한 부모되기
마음 치유와 자녀 심리 이해



신 청 안 내

수 강 료 : 무료교육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대 상 :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 (선착순 35명)
기 간 : 5월 2일 ~ 6월 20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장 소 : 한마음선원 경내 한마음과학원 3층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문 의 : 031-470-3200, 3198 매주 월요일 휴무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hansi.org)에서 신청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